農村醫學·地域保健學會誌：第36券 第1號(2011年 3月) DOI: 10.5393/JAMCH.2011.36.1.001
J Agric Med Community Health 2011;36(1):1~12

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

송성호[1], 강창렬[1], 이태용[2], 권인선[2]
혜천대학 의료정보과[1],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2]

Influencing Factors on Suicide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Sung-Ho Song[1], Chang-Yeol Kang[1], Tae-Yong Lee[2], In-Sun Kwon[2]
Department of Medical Informatics, Hyechon University[1]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iences[2]

= Abstract =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suicide ide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in urban and rural areas, and especially to research the relationship between suicide ideation, and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of school life, and empirical characteristics of suicide.

Methods: This research targeted four urban and four rural high schools in two cities. The study subjects were 1,114 students in urban area and 968 students in rural area, total 2,082 students.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ly 1, 2009 to July 31, 2009. For statistical analysis, chi-square test, t-test and ANOVA were used for investigating related factors with suicide ideation in urban and rural areas, respectively, with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for multivariate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38.8% of respondents had suicide ideation within 1 year. The percentage of female students (44.8%)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male students (33.4%).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urban (38.0%) and rural area (39.9%). Th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n suicide ideation in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ere gender [female student OR(odds ratio)=1.80 (95% CI 1.31-2.47) compared with male student] and grade [second year OR=1.40 (95% CI 0.98-2.00), third year OR=2.15 (95% CI 1.49-3.12) compared with first year] in urban area. Those in rural area were gender [female student OR(odds ratio)=2.71 (95% CI 1.23-2.38) compared with male student], economic deterioration [yes OR=1.81 (95% CI 1.24-2.64) compared with no], and grade [second year OR=2.80 (95% CI 1.82-4.32), third year OR=3.84 (95% CI 2.52-5.87) compared with first year].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about 40% of high school students had suicide ideation within 1 year. A suicide prevention program may be implemented considering factors related with suicide ideation identified in this study.

Key words: High school, Suicide ideation, Urban and Rural

---

* 접수일(2010년 9월 6일), 수정일(2011년 2월 28일), 게재확정일(2011년 3월 4일)
* 교신저자: 송성호,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동 333번지 혜천대학 진리관 4층 의료정보과 120411호
Tel: 042-580-6227, Fax: 042-580-6227, E-mail: mnssong@hanmail.net

서 론

2007년 기준으로 OECD 평균 자살 사망률[1]은 인구 10만명당 11.2명으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다. 2007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2]에서 자살은 인구 10만명당 24.8명으로 신생물(137.5명), 뇌혈관질환(59.6명), 심장질환(43.7)에 이어 4위로 매우 높다. 특히 청소년의 자살은 10만명당 4.6명으로 20대 21.0명, 30대 22.4명, 40대 26.3명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지만 10대 청소년들의 자살은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살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자살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로 인하여 야기되는 의료비뿐만 아니라, 자살로 인하여 사망하는 사람들의 잠재적 노동력 손실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까지 함께 유발하고 있다. 또한 자살로 인한 정서적, 사회·경제적 고통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파급된다는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살 문제는 개인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자살로 인한 다양한 차원의 문제들을 풀 수 있다.

생명존중에 대한 경시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위기를 반영하는 지표인 자살은 청소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보건학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 대학 입시목표와 현실간의 괴리가 우울증을 유발하고 그것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3].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행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중·고생의 23.4%가 자살을 생각해 보았으며, 5.5%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열등감, 소외감 그리고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 및 충동성 등의 자아기능의 상호작용적 요인, 가족환경과 학교관련 요인 및 사회적인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유발된다[5].

자살을 정의함에 있어 세계보건기구(WHO)는 자살행위로 인하여 죽음을 초래하는 경우로, 죽음의 의도와 동기를 인식하면서 자신에게 손상을 입히는 행위라고 하였고, 1951년[6]Durkheim은 자신에게 일어날 결과를 예측하고 행하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동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죽음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Hong[7]는 자살행동을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및 자살실행 등으로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자살생각은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으로 자살을 하는 수단에 대한 생각까지를 포함한다. 자살계획은 자살생각을 넘어서는 행동적 차원을 포함하지만 자해적 행동에는 이르지 않는 유서작성, 소지품정리 및 서적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자살정보수집 등을 포함한다. 자살시도는 고의적이고 실제적인 자해 등을 포함하며 실행은 실제적인 자살을 의미한다. 이를 행동적 차원에서 보면, 자살생각은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은 심리적 증상을 말하고, 자살계획은 자살에 관련된 행동의 표현은 있으나 자해에는 이르지 않는 것이며, 자살시도는 표출된 자해행동을 말한다.

경험적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자살생각은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자살시도나 자살행위로 이어진다고 주장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의 빈도와 일반적 특성, 학교생활 특성, 자살에 대한 경험적 특성 요인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의 빈도와 일반적 특성, 학교생활 특성, 자살에 대한 경험적 특성 요인이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우리나라 중부권에 소재한 도농복합도시인 K시의 15개 고등학교 중 도시지역 4개교, 농촌지역 4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였다. 각 학교마다 1, 2, 3

학년을 대상으로 남녀 학생 각 100명씩 전체 2,40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결과 응답 내용이 미비하거나 불확실한 설문 응답자를 제외한 도시지역 학생 1,114명, 농촌지역 학생 968명, 합계 2,082명(회수율 86.7%)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들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2009년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에 실시하였다.

2. 조사방법

1) 조사방법

설문조사는 학생부장에게 설문내용을 들은 각 학년 담임선생이 아침 자습시간에 학생들에게 설문 작성 요령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설문지를 작성한 후에 바로 담임선생이 회수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8문항, 학교생활 특성 3문항, 자살에 대한 경험적 특성 3문항, 자살생각(1년내) 1문항으로 하였다. 조사한 변수의 구체적인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기초생활수급여부, 흡연여부, 음주여부, 이성친구와의 이별여부, 부모동거 여부, 경제악화변화여부, 부모와의 언쟁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학교생활특성에서는 학교계열과 학년 및 학교성적을 조사하였다. 자살에 대한 경험적 특성으로는 가족의 자살경험 유무, 자살에 대한 자문(상담)으로는 의료기관 정신과에서 자살상담, 정신보건센터의 자살상담, 민간 자살상담의 생명의 전화, 청소년자살상담의 희망의 전화 등에서 받은 자살자문(상담)경험유무, 자살예방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유무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자살생각에 대해서는 최근 1년 동안의 자살생각 유무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자살생각에 대한 조사는 최근 1년 동안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에 대한 질문에 '예'와 '아니오' 중에서 택일하도록 하였다.

2)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수집된 자료는 전산입력 후 SPSSWIN(ver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조사 대상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자살경험 특성 및 자살생각에 대한 분포는 ANOVA, Chi-square test로 검정하였으며, 각 독립변수들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량의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 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2,082명 중 도시학생의 성별은 남자(50.8%), 여자(49.2%)로 농촌학생의 남자(54.4%), 여자 (45.6%)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도시학생(21.8%)이 농촌학생(19.0%)보다 높았다. 흡연은 도시학생(32.1%)이 농촌학생(17.9%)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p<0.001$), 음주도 도시학생(46.2%)이 농촌학생(29.4%)에 비하여 높았다($p<0.001$). 이성친구와의 이별경험은 도시학생(50.4%)이 농촌학생(37.7%)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0.001$), 부모님과의 언쟁도 도시학생(34.1%)이 농촌학생 (29.0%)보다 높았으며($p=0.013$), 경제악화는 농촌학생(28.2%)이 도시학생(26.0%)보다 높았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 부모님들 간의 언쟁은 농촌학생(22.7%)이 도시학생(18.5%)보다 높았다($p=0.017$)
(Table 1).

2. 학교생활 특성 및 자살에 대한 경험적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학교생활특성에 있어 계열별 구성비는 일반계의 경우 농촌학생(54.5%)이 도시학생(48.8%)보다 높았으나 전문계에서는 도시학생(51.2%)이 농촌학생(45.5%)보다 높았다($p=0.009$). 학년과 학교성적에서는 도시, 농촌학생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자살에 대한 경험적 특성에서 가족 자살 경험이 있었던 학생은 농촌학생(9.6%)이 도시학생(7.3%)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0$), 자살관련 사례자문을 받았던 학생은 농촌학생(12.9%)이 도시학생(8.8%)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2$). 자살예방교육을 받은 학생은 전체적으로(17.9%)였으며, 농촌학생(21.9%)이 도시학생(14.4%)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Persons (%)

Variable	Urban	Rural	Total	p-value
Sex				0.098
Male	566 (50.8)	527 (54.4)	1,093 (52.5)	
Female	548 (49.2)	441 (45.6)	989 (47.5)	
Welfare recipients				0.114
Yes	243 (21.8)	184 (19.0)	427 (20.5)	
No	871 (78.2)	784 (81.0)	1,655 (79.5)	
Smoking				<0.001
Yes	358 (32.1)	173 (17.9)	531 (25.5)	
No	756 (67.9)	795 (82.1)	1,551 (74.5)	
Drinking				<0.001
Yes	515 (46.2)	285 (29.4)	800 (38.4)	
No	599 (53.8)	683 (70.6)	1,282 (61.6)	
Break up with friends				<0.001
Yes	562 (50.4)	365 (37.7)	927 (44.5)	
No	552 (49.6)	186 (62.3)	368 (55.5)	
Argument with parents				0.013
Yes	380 (34.1)	281 (29.0)	661 (31.7)	
No	734 (65.9)	687 (71.0)	1,421 (68.3)	
Economic deterioration				0.266
Yes	290 (26.0)	273 (28.2)	563 (27.0)	
No	824 (74.0)	695 (71.8)	1,519 (73.0)	
Argument between parents				0.017
Yes	206 (18.5)	220 (22.7)	426 (54.5)	
No	908 (81.5)	748 (77.3)	1,656 (34.8)	
Total	1,114(100.0)	968 (100.0)	2,082 (100.0)	

Table 2. Characteristics of school life and empirical characteristics of suicide

Unit: Persons (%)

Variable	Urban	Rural	Total	p-value
School type				0.009
General	544 (48.8)	528 (54.5)	1,072 (51.5)	
Technical	570 (51.2)	440 (45.5)	1,010 (48.5)	
Grade year				0.089
First Year	363 (32.6)	356 (36.8)	719 (34.5)	
Second Year	378 (33.9)	323 (33.4)	701 (33.7)	
Third Year	373 (33.5)	289 (29.9)	662 (31.8)	
Result				0.183
High	200 (18.0)	174 (18.0)	374 (18.0)	
Middle	652 (58.5)	531 (54.9)	1,183 (56.8)	
Low	262 (23.5)	263 (27.1)	525 (25.2)	
Family history of suicide				0.050
Yes	81 (7.3)	93 (9.6)	174 (8.4)	
No	1,033 (92.7)	875 (90.4)	1,908 (91.6)	
Suicide counselling				0.002
Yes	98 (8.8)	125 (12.9)	223 (10.7)	
No	1,016 (91.2)	843 (87.1)	1,859 (89.3)	
Suicide education				<0.001
Yes	160 (14.4)	212 (21.9)	372 (17.9)	
No	954 (85.6)	756 (78.1)	1,710 (82.1)	
Total	1,114 (100.0)	968 (100.0)	2,082 (100.0)	

3. 자살생각에 대한 특성

1년 내 자살생각은 전체 대상자 2,082명 중 (38.8%)에서 있었으며, 성별로 여자(44.8%), 남자(33.4%)로 여자가 유의한 차이로 높았다(p< 0.001). 지역별로는 도시학생 경우 여자(43.2%), 남자(32.9%)보다 높았고(p<0.001), 농촌학생의 경우 여자(46.7%), 남자(34.0%)보다 높았다(p<0.001). 기초생활수급에 따른 자살생각은 도시에 경우는 차이가 없었으나 농촌에 경우는 수급자(49.5%), 비수급자 (37.5%)보다 높았다(p<0.001). 부모동거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은 도시학생 경우 동거(38.0%), 비동거 (37.8%)와 비슷하였으나 농촌학생 경우는 비동거(49.2%),동거(36.6%)에 비하여 자살생각이 높았다(p<0.001). 흡연에 따른 자살생각은 도시학생, 농촌지역 모두에서 높았으며(p<0.001), 음주에 따른 자살생각 역시 도시학생과 농촌학생 모두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성 친구와의 이별경험에 따른 자살생각은 도시학생 경우 경험자가 (45.2%), 비경험자(30.6%)에 비하여 높았고(p<0.001), 농촌학생 역시 경험자가 (51.0%), 비경험자(33.3%)에 비하여 높았다(p<0.001). 부모와의 언쟁경험 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은 도시학생, 농촌학생 모두 경험집단에서 각각 (48.2%), (57.7%)로 비경험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경제악화변화 경험집단에서 도시학생(45.2%), 농촌학생(58.2%) 모두 비경험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01). 부모간의 언쟁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은 언쟁이 있었던 집단에서 도시학생(52.4%), 농촌학생(56.4%)로 언쟁이 없던 집단의 도시학생(34.7%), 농촌학생(34.9%)에 비하여 높았다(p<0.001). 계열별 자살생각은 도시학생 경우 전문계(42.5%), 일반계(33.3%)보다 높았으며(p<0.001), 농촌학생 전문계가(46.8%)로 일반계(33.9%)보다 높았다(p<0.001). 학년별로는 1학년자살 8.5%), 2학년자살 8.5%), 3학년자살 8.5%)로 고학년일수록 대입문제로 자살생각이 높았으며 도시학생, 농촌학생 모두가 고학년일수록 자살생각이 높았다(p<0.001). 학교성적에서도 도시학생(48.5%), 농촌학생(42.2%)로 성적이 하위학생이 상위학생보다 자살생각이 유의하게 높았다(p<0.001). 가족자살의 경험 여부에 따른 자살생각은 전체적으로 경험군(64.9%), 비경험군(35.1%)보다 높았으며(p<0.001), 농촌지역에서는 경험군(71.0%), 비경험군(36.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p<0.001). 자살사례자문 경험 여부에 따른 자살시도는 전체적으로 경험군의 68.6%에서 있었고, 비경험군의(35.2%)보다 높았다(p<0.001), 자살교육 경험 여부에 따른 자살시도는 전체적으로 경험군의 (56.7%)에서 있었고, 비경험군의 34.9%보다 높았으며, 도시지역의 경우, 경험군이(63.8%), 비 경험군이 33.6%로 농촌지역에 비해 자살생각이 더 높은 비율로 차이를 보였다(p<0.001)(Table 3).

4. 자살생각에 관련된 요인

조사대상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기위하여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Multiple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도시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성별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교차비가 1.80배(95%CI: 1.31-2.47)높았으며, 학년별 1학년에 비해 3학년이 교차비가 2.15배(95%CI: 1.49-3.12)로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으며, 농촌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성별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교차비가 2.71배(95%CI: 1.23-2.38)높았으며, 부모와 동거유무에서 동거경험이 비동거경험보다 교차비가 0.60배(95%CI: 0.41-0.89)유의하게 낮았다. 경제악화변화는 경험집단이 비경험집단 보다 교차비는 1.81배(95%CI: 1.24-2.64), 학년별에서 교차비가 1학년에 비해 2학년이 2.80배(95%CI: 1.82-4.32), 3학년이 3.84배(95%CI: 2.52-5.87)로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다. (Table 4).

고 찰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은 우리나라 중부권에 소재한 도농복합도시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들이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8], 또한 그동안 연구가 미흡하였던 중소도시 지역의 고등학생들에 대한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고등학생들의 자살관리대책을 수립하는데 좋은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살관련 경험측정도구는 Holmes 등[9] 자살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과 생활사건의 특성 및 빈도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관찰, 수집하여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최근자살경험표(Schedule of Recent Suicide Experience)를 사용하여[10],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가족자살에 대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8.4%), 자살자문경험이 있다는 경우가 (10.7%), 자살교육경험이 있다는 경우가(17.9%)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 학생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자살에 대한 경험적 특성은 주변에서 발생하는 자살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한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행연구[14]에서는 자살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77.2%)로 높게

Table 3. The prevalence of suicide ideation within 1 year by socio-demographic and psychological variables
Unit: Persons (%)

Variable	Urban		Rural		Total	
	N	Yes (%)	N	Yes (%)	N	Yes (%)
Gender						
Male	566	186 (32.9)	527	179 (34.0)	1,093	365 (33.4)
Female	548	237 (43.2)	441	206 (46.7)	989	443 (44.8)
p-value	<0.001		<0.001		<0.001	
Living with patents						
Yes	823	313 (38.0)	726	266 (36.6)	1,549	579 (37.4)
No	291	110 (37.8)	242	119 (49.2)	533	229 (43.0)
Welfare recipients						
Yes	243	90 (37.0)	184	91 (49.5)	427	181 (42.4)
No	871	333 (38.2)	784	294 (37.5)	1,655	627 (37.9)
p-value	0.734		<0.001		0.069	
Smoking						
Yes	358	173 (48.3)	173	89 (51.4)	531	262 (49.3)
No	756	250 (33.1)	795	296 (37.2)	1,551	546 (35.2)
p-value	<0.001		<0.001		<0.001	
Drinking						
Yes	515	238 (46.2)	285	130 (45.6)	800	368 (46.0)
No	599	185 (30.9)	683	255 (37.3)	1,282	440 (34.3)
p-value	<0.001		0.016		<0.001	
Break up with friends						
Yes	562	254 (45.2)	365	186 (51.0)	927	440 (47.5)
No	552	169 (30.6)	603	199 (33.0)	1,155	368 (31.9)
p-value	<0.001		<0.001		<0.001	
Argument with parents						
Yes	380	183 (48.2)	281	162 (57.7)	661	345 (52.2)
No	734	240 (32.7)	687	223 (32.5)	1,421	463 (32.6)
p-value	<0.001		<0.001		<0.001	
Economic deterioration						
Yes	290	131 (45.2)	273	159 (58.2)	563	290 (51.5)
No	824	292 (35.4)	695	226 (32.5)	1,519	518 (34.1)
p-value	0.003		<0.001		<0.001	
Argument between parents						
Yes	206	108 (52.4)	220	124 (56.4)	426	232 (54.5)
No	908	315 (34.7)	748	261 (34.9)	1,656	576 (34.8)
p-value	<0.001		<0.001		<0.001	

Table 3. Continued

Unit: Persons (%)

Variable	Urban		Rural		Total	
	N	Yes (%)	N	Yes (%)	N	Yes (%)
School type						
General	544	181 (33.3)	528	179 (33.9)	1,072	360 (33.6)
Technical	570	242 (42.5)	440	206 (46.8)	1,010	448 (44.4)
p-value	<0.001		0.002		<0.001	
Grade year						
First Year	373	119 (31.9)	289	70 (24.2)	662	189 (28.5)
Second Year	378	142 (37.6)	323	128 (39.6)	701	270 (38.5)
Third Year	363	162 (44.6)	356	187 (52.5)	719	349 (48.5)
p-value	<0.001		0.002		<0.001	
Result						
High	200	77 (33.6)	174	63 (36.2)	374	140 (37.4)
Middle	652	219 (38.5)	531	211 (39.7)	1,183	430 (37.8)
Low	262	127 (48.5)	263	111 (42.2)	525	238 (45.3)
p-value	0.455		<0.001		0.002	
Family history of suicide						
Yes	81	47 (58.0)	93	66 (71.0)	174	113 (64.9)
No	1,033	376 (36.4)	875	319 (36.5)	1,908	695 (36.4)
p-value	<0.001		<0.001		<0.001	
Suicide counselling						
Yes	98	67 (68.4)	125	86 (68.8)	223	153 (68.6)
No	1,016	356 (35.0)	843	46 (5.5)	1,859	655 (35.2)
p-value	<0.001		<0.001		<0.001	
Suicide education						
Yes	160	102 (63.8)	212	109 (51.4)	372	211 (56.7)
No	954	321 (33.6)	756	276 (36.5)	1,710	597 (34.9)
p-value	0.001		<0.001		<0.001	
Total	1,114	423 (38.0)	968	385 (39.8)	2,082	808 (38.8)

Table 4.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within 1 year

Variable	Urban		Rural	
	Odds ratio	95% CI	Odds ratio	95% CI
Gender				
Male	1.00		1.00	
Female	1.80	(1.31-2.47)	2.71	(1.23-2.38)
Welfare recipients				
Yes	1.00		1.00	
No	0.44	(0.30-1.67)	0.93	(0.57-1.53)
Smoking				
Yes	1.00		1.00	
No	0.66	(0.44-1.00)	0.82	(0.48-1.40)
Drinking				
Yes	1.00		1.00	
No	0.85	(0.59-1.25)	0.97	(0.63-1.50)
Break up with friends				
Yes	1.00		1.00	
No	0.96	(0.67-1.38)	0.96	(0.87-1.45)
Argument with parents				
Yes	1.00		1.00	
No	0.68	(0.41-1.39)	0.60	(0.41-0.89)
Economic deterioration				
No	1.00		1.00	
Yes	0.91	(0.64-1.30)	1.81	(1.24-2.64)
Argument between Parents				
Yes	1.00		1.00	
No	0.79	(0.51-1.22)	0.94	(0.62-1.45)
School type				
General	1.00		1.00	
Technical	1.91	(0.96-2.67)	2.05	(0.67-2.45)
Grade year				
First Year	1.00		1.00	
Second Year	1.40	(0.98-2.00)	2.80	(1.82-4.32)
Third Year	2.15	(1.49-3.12)	3.84	(2.52-5.87)
Result				
High	1.00		1.00	
Middle	0.91	(0.61-1.36)	1.26	(0.82-1.95)
Low	1.50	(0.94-2.40)	1.32	(0.82-2.14)
Family history of suicide				
Yes	1.00		1.00	
No	0.45	(0.15-1.49)	0.27	(0.15-1.49)
Suicide counselling				
Yes	1.00		1.00	
No	0.48	(0.27-1.86)	0.27	(0.17-1.45)
Suicide education				
Yes	1.00		1.00	
No	0.32	(0.21-1.49)	0.59	(0.40-1.87)

나타나고 있으며,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송성호[11]의 연구결과에서도 자살생각이 있다는 경우가 자살서비스관심 경험군에서(61.5%), 가족자살경험군에서 (64.9%), 자살사례관리경험군에서(64.6%), 자살사례자문경험군에서(68.6%), 자살교육경험군에서 (56.6%) 등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살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거나 가족자살, 자살사례관리, 자살사례자문 및 자살교육 등에 대한 경험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살에 대한 상담이나 가정방문 등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한 집중적인 사례관리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망을 통한 다양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리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본 연구에서의 최근1년 내에 자살생각이 있었던 학생은 도시지역이(38.0%), 농촌지역이(39.8%)로 나타났으나 도시지역학생과 농촌지역학생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1차년도 2007[12]에서 청소년 중 고등학생 자살생각은 (23.6%)로, 질병관리본부 2007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통계에서는(23.6%) 나타나 본 연구결과에서는(38.8%)의 학생이 최근 1년 내에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여서 기존 연구들보다 높은 비율의 자살생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자살생각에 대한 남녀 비율을 조사한 연구를 보면, 15세부터 18세까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두 배 이상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3]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남학생(38.9%), 여학생(60.5%)로 여학생이 훨씬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조사대상과 조사방법의 차이에 따라 자살생각의 비율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훨씬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남자 33.4%, 여자 44.8%로 여자가 높았고, 도시나 농촌지역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보건복지가족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12]와 질병관리본부 건강행태 온라인조사[4]보다 높았다.

자살생각과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학대받은 청소년의 경우, 자살생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 청소년 자녀가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자살생각의 정도가 낮다고 하였으며[15], 아버지와 개방된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청소년일수록 자살생각을 적게 한다는 보고도 있고[16],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집단에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매우 낮으며, 가족화목도 역시 낮게 나타났다[17]. Kim[18]은 부모와의 갈등적 의사소통이 청소년 자녀의 자살생각에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집단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매우 낮으며[16], 청소년의 자해생각과 행동은 가족의 낮은 지지와 관련이 있고, 부모-자녀와의 의견불일치[13], 부모와의 감정적 차이[19], 부모의 태도, 개방적 의사소통의 결여[20] 등이 청소년의 약물남용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요인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언쟁이 있는 경우가(52.2%)로 없는 경우의(32.6%)보다 높게 나타나, 청소년기의 부모-자녀간의 관계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자살생각에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여부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분석한 보고에서 흡연군(27.0%)이 비흡연군(22.3%)보다, 음주군(28.9%)이 비음주군(20.5%)보다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흡연군이(49.3%)로 비흡연군(35.2%)에 비하여 높았고, 음주군도 (46.%)로 비음주군(34.3%) 보다 높아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흡연과 음주는 약물남용, 충동성의 예측인자이며 자살행동의 높은 위험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21]. 본 연구결과에서 음주와 흡연군에서 높은 자살생각을 보이는 것은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되며 청소년에서 음주와 흡연의 조절이 자살행동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성친구와의 이별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는 보고가 있었으며[22], 본 연구에서도 이성친구와의 이별이 있었던 군이 전체(47.5%)로 아닌 경우 31.9%보다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질병관리본부의 2007년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

조사통계에 의하면 일반계 22.9%보다 전문계가 (25.6%)로 자살생각이 높았으며, 선행연구에서도 일반계보다는 전문계에서 자살생각이 높았다는 연구가 있었고[17], 반면에 일반계, 농업계,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순위로 높은 자살충동을 느낀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23]. 본 연구에서는 학교계열별 자살생각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에서 일반계 (36.6%) 보다 전문계가(44.4%)로 전문계에서 자살생각이 더 높았다.

자살생각에 대한 경험적 특성은 주변에서 발생하는 자살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한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임연구에서는 자살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살생각을 경험한 것이(77.2%)로 나타났다[10]. 사람들은 자살 행동이 정신 질환보다 더욱더 부끄럽다고 생각한다. 자살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로 전해질 수 있는 개인적인 특징이 아닌 개인의 미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추어 진다. 같은 환경에서 자살은 반복적으로 시도될 것이다. 따라서 자살 행동과 연관된 광범위한 개별적인 접촉에도 불구하고 자살은 여전히 부끄러운 행동으로 보여 지고 있으며, 자살 방지 교육 캠페인은 세계 보건기구가 강조하듯이 자살 위협의 심각한 의미와 연관된 행동을 강조해야 한다[24].

Reinherz(2006)의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을 했던 집단에서 하지 않았던 집단에 비하여 자살시도를 12배 많이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25]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도시지역학생의 자살생각에는 성별, 학교학년별이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으며, 농촌지역학생에서는 성별, 부모동거유무, 경제악화변화, 학년별에서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송성호[15]의 연구에서도 도시지역학생에서는 여학생, 학년별 상급생에서 교차비가 높았으며, 농촌지역에서는 여학생, 부모와 비동거가 교차비가 낮게 나타났으며, 학년별에 학급이 높을수록 교차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어 자살생각에 관여하는 여러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의 제한점 및 제언은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주관적인 성향으로 응답될 수 있으며, 한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 자살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 변인, 학교생활 변인, 자살에 대한 경험적 변인 등은 향후 자살예방프로그램개발 및 관리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 약

본 연구는 도시·농촌지역 고등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고, 일반적 특성, 학교생활특성, 자살경험특성 및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우리나라 중부권에 소재한 K시의 도시지역 학생 1,114명, 농촌지역 학생 968명을 대상으로 2009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최근 1년간 자살생각을 갖은 고등학생은 38.8%였으며 도시와 농촌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변량분석 결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으로 도시학생은 성별[남자에 비하여 여자의 교차비가 1.80 (95%CI: 1.31-2.47)]과 학년[1학년에 비하여 2학년 교차비가 1.40(95% CI: 0.98-2.00), 3학년 교차비 2.15(95% CI: 1.49-3.12)이 유의하였다. 농촌학생은 성별[남자에 비하여 여자의 교차비가 2.71 (95%CI: 1.23-2.38)], 경제악화 [비경험군에 비하여 경험군의 교차비가 1.81(95% CI: 1.24-2.64)], 그리고 학년[1학년에 비하여 2학년 교차비가 2.80(95% CI: 1.82-4.32), 3학년 교차비 3.84(95% CI: 2.52-5.87)이 유의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고등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가정환경 변인, 학교생활 변인, 자살에 대한 경험적 변인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자살예방프로그램개발 및 자살예방을 위한지속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OECD Statistical Charts for National Cause of Death in 2007, 2008 (Korean)

2.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Statistical Analysis for the Death and Cause of Death in 2007, 2008 (Korean)
3. Kwan EH.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uicide Ideation of Juveniles. Wonkwang University, 2008 (Korean)
4.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Online Statistical Research for the Youth Health Behaviors in 2007, 2008 (Korean)
5. Ra HJ. Factors Influencing the Impulse of Suicide in Adolescence. Konkuk University, 2006
6. Durkheim E. Suicide New York : Free PRESS (K13-122). 1951
7. Hong YS. The effects of life stress and psychosocial resources for adolescent suicidal behaviors. Yonsei University, 2004 (Korean)
8. Shin MS, Park KB, Oh KJ, Kim JS. "A Study of Suicidal Ideati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90;9(1):1-19 (Korean)
9. Holmes, T. H. & Rahe, R. H.(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967;11: 213-218
10. Kim SN. Awareness and Toward Suicide in Community Mental Health Professionals and Hospital Workers. *J Prev Med Public Health* 2009;42(3):183-189 (Korean)
11. Song SH. The study on some high-school students' ideation, attempts, and plans for suicide and related factors. Chongnam National University, 2010 (Korean)
12. Ministry of Health & Welfare. The 4th National Health and Nation Examination Survey of the 1st year. 2007 (Korean)
13. Hoe JS. The effect of a School type and Psychological Environment on High School Student's Suicided Ide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07 (Korean)
14. Lee GY. The Effects of Stress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Suicide Ideation. Chung Ang University, 2004 (Korean)
15. Walker J. Adolescent Stress, Depression and Suicide: Minnesota study. Unpublished raw data. 1986
16. Chang MS. Relation between the parents-adolescent Communication and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Myongi University, 1999 (Korean)
17. Lee KJ.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High Risk Group in Adolescent Suicide. Catholic University, 2003 (Korean)
18. Kim BY. A Meta-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Chongnam National University, 2008 (Korean)
19. Smith, K. & Crawford S. Suicide behavior among normal high school stud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986;16:313-325
20. Barners GM, Farrell MP.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as predictor of adolescent of adolescent drinking, deliquescent and related problem behavior. *J Marrital Fam* 1992;53: 763-776
21. Oh EK. A study on Psychosocial Traits of clients Experienced Suicide ideation Catholic University, 2003 (Korean)
22. Lim SB, Jeong CH. A Comparison of Stressors and Coping Behaviors of the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Suicidal Ideation vs those who do not. *Journal of Korea Academy of Nursing* 2002;32(2):254-264 (Korean)
23. Kim YA.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High School Students' Suicidal risks and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Keimyung University, 2004 (Korean)
24. Kim EJ. The Study on Socio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Suicide Impulse of Juveniles. Cheongju University, 2002 (Korean)
25. Ko DH. Effects of the Parent's raising Attitude and the School Adjustment on the Adolescent Suicide Ideation. Yonsei University, 2008 (Korean)